

2024  
고1 국어  
천재(이)

고1 국어 천재(이) | 4(1)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1. 한글 맞춤법 규정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글 맞춤법 규정

-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 값이, 값을, 값에, 값도, 값만
-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적다, 적고, 적지, 적는, 적어, 적으니
-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길이, 깊이 / 묶음, 얼음 / 같이, 굳이, 높이 / 밝히, 익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목거리(목병), 무너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 노름(도박)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마감, 마개, 마중, 무덤, 주검 / 너무, 자주, 차마 / 나마, 부터, 조차
-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곳곳이, 날날이, 뭉뭉이, 살살이, 앞앞이, 집집이 / 바둑이, 왕눈이, 삼밭이, 절름발이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꼬락서니, 끄트머리, 바가지, 바깥,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깔쭉이, 꿀꿀이, 배불뚝이, 뼈죽이, 오뚝이, 훌쭉이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깎두기, 얼루기

2.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규정을 바탕으로 우리말 표기의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글 맞춤법 총칙

- 제1항: 한글 맞춤법은 ①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②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소리대로 적되’: 한글은 소리글자인데 소리글자는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문자이므로, 한글 맞춤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 바다, 하늘
- ② ‘어법에 맞도록 함’: 형태소들이 만나 소리가 바뀔지라도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적는 것을 의미한다. 형태소들이 만나 소리가 바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읽는 사람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서 능력을 위해 각각의 형태를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게끔 규정한 것이다. ㉠ 적고, 적지

▣ 접미사의 생산성과 표기의 원칙

표기 원칙	종류	이유
① 소리 나는 대로 적음.	생산성이 낮은 접미사(‘-이’, ‘-음/-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성이 낮아 그 말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 기억할 때 얻는 이점이 적다.</li> <li>• 이러한 접미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하다.</li> </ul>

<p>② <b>형태를 밝히어 적음.</b></p>	<p>생산성이 높은 접미사(‘-이’나 ‘-히’, ‘-음/-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 만들어진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li> <li>•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들어 내는 접미사를 인지하기 좋다.</li> </ul>
-----------------------------	---	---

3.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① 시험 기간인데 <b>조름</b>이 쏟아져서 공부가 잘 안돼. → ‘<b>졸음</b>’</p>
<p>② <b>문안하게</b>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겠네. → ‘<b>무난하게</b>’</p>
<p>③ 근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배가 아픈데 <b>어떡하지?</b> → ‘<b>어떡하지</b>’ 또는 ‘<b>어떻게 하지</b>’</p>
<p>④ 시험 보기 전에 병이 <b>낱도록</b> 병원에 다녀와야겠구나. → ‘<b>낫도록</b>’</p>
<p>⑤ <b>가던지 오던지</b> 마음대로 해라. → ‘<b>가든지 오든지</b>’</p>
<p>⑥ 엄마가 아이에게 예방주사를 <b>맞쳤다</b>. → ‘<b>맞혔다</b>’</p>
<p>⑦ 아이의 돌을 맞아 수수로 만든 떡을 <b>마쳤다</b>. → ‘<b>맞췌다</b>’</p>

**지문 분석**

**‘오뚜기’로 적을까, ‘오뚝이’로 적을까**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가 설명 대상임.) 먼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밀이 무거워서 아무렇게나 굴러도 오뚝오뚝** 일어나는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입니다.(실제 물건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유도함.) 여러분은 이 장난감의 이름을 **‘오뚜기’와 ‘오뚝이’ 중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나요?**(실생활 속의 사례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함.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 ‘글의 앞부분에서 실생활 속의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입니다.

▶ 우리말의 정확한 표기 방식을 제시한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한글은 **소리글자**(표음 문자)이므로,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즉 발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글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은 한글이 소리글자인 것과 관련이 없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 ‘**나무**’를 의미하는 단어는 소리 나는 대로 ‘**우**’, ‘**나무**’로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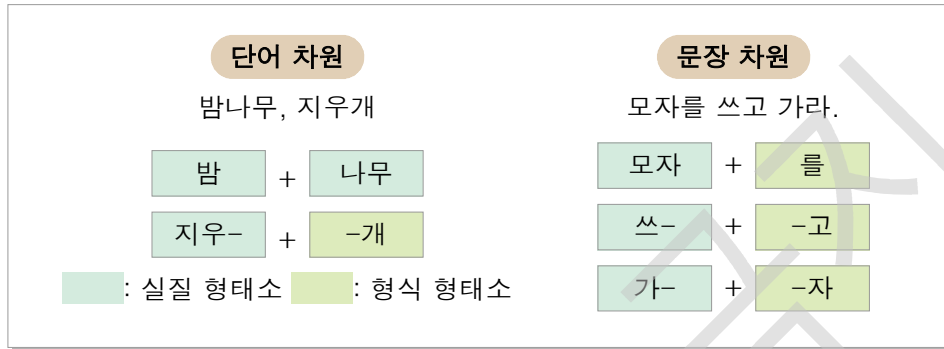
그런데 ‘**꽃**’, ‘**먹-**’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음운 환경에 따라 ‘꽃이[꼬치]’, ‘꽃만[꼐만]’, ‘꽃도[꼐또]’, ‘먹어[머거]’, ‘먹는[멍는]’, ‘먹지[먹찌]’** 등으로 각각 다르게 발음됩니다.(받침으로 쓰인 ‘**ㅈ**’과 ‘**ㄱ**’이 음운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음됨.) 이렇게 달리 발음되는 단어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국어의 특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어의 단어와 문장은 **형태소**(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 국어의 특징] **형태소**는 구체적 대상이나 상태, 동작 등 실질적인 의미를 표시하는 **실질 형태소**(어휘 형태소라고도 함.)와, 접사나 어미, 조사처럼 실질 형태소에 결합하여 보조적 의미를 덧붙이거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요소인 **형식 형태소**(문법 형태소라고도 함.)로 나뉩니다. ]([[: 형태소의 종류 - 형태소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분류할 수 있음. 자립 형태소란 자립하여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이에 해당함. 의존 형태소란 자립하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형태소로, 조사, 접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이에 해당함. / 또한 형태소는 의미 유형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분류할 수 있음. 실질 형태소란 실질적 의미를 갖는 형태소로, 자립 형태소 전체와 용언의 어간이 이에 해당함. 형식 형태소란 문법적 의미만 갖는 형태소로, 조사, 접사, 용언의 어미가 이에 해당함.)

▶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나 한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음될 수 있음.

다음 자료를 볼까요?



위 자료에서 보듯 국어 단어는 **실질 형태소(밤, 나무)끼리 만나 이루어지거나(합성어) 실질 형태소(지우-)에 형식 형태소(-개)가 붙어 만들어지며(파생어), [ 국어 문장을 이루는 문장 성분도 기본적으로 실질 형태소(모자, 쓰-, 가-)에 형식 형태소(를, -고, -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체언에 조사를 결합하거나, 용언의 어간에 어미를 결합함.) ]**([ ]: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은 기본적으로 실질 형태소에 형식 형태소가 붙어 이루어지거나, 예문의 '현'이나 '매우'처럼 실질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예 현 옷이 매우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의 '꽃', '먹-'과 같이 형태소들이 만나 소리가 바뀔 때에는 바뀐 소리대로 적어야 할지, 혹은 소리는 바뀌었지만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어야 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글 맞춤법은 바로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답을 제시합니다.**(한글 맞춤법이 규범으로서 표기의 기준을 제시함.)

오늘은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을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고, '오뚜기'와 '오뎅이' 중 무엇이 올바른 표기인지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 형태소의 결합 과정에서 소리가 바뀔 경우 표기에 바뀐 소리의 반영 여부를 살펴봐야 함.

###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

자, **한글 맞춤법**(한글 맞춤법은 제1장 총칙을 포함하여 제2장 자모,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5장 띄어쓰기, 제6장 그 밖의 것,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칙 제1항을 살펴볼까요?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먼저 **'소리대로 적되'**(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원칙을 묻는 문제에 "소리대로 적되"에 해당하는 예로 '바다, 하늘, 나무, 꽃'이 있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꽃'은 표준 발음이 '[꼐]'이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되'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는 한글이 **소리글자**(표음(表音) 문자라고 함. 표음 문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지는 않고, 대신 일정한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로 한글이 이에 해당함. ↔ 표의 문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로 한자가 이에 해당함.)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리글자는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문자(글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에 '한글은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소리글자에 해당한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이므로, 한글 맞춤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표준어**(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입니다. '바다', '하늘' 등이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경우지

요.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단어나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리가 바뀌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함께 제시된 것이 **‘어법에 맞도록’(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원칙을 묻는 문제에 “어법에 맞도록은 읽는 사람이 의미를 쉽게 파악하도록 해 독서 능력을 높인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적는다는 원칙입니다.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형태소들이 만나 소리가 바뀔지라도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원칙의 의미. 글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에 ‘형태소들이 만날 때 소리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처럼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원칙이 덧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태소들이 만나 소리가 바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읽는 사람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원래의 형태소를 알 수 없어 읽는 사람이 뜻을 파악하기 어려움.)

◁ 그러므로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서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우리말 표기의 기본이라는 원칙을 제시하는 동시에, [ 형태소들이 만나 소리가 바뀔지라도 독서 능력을 위해(읽는 사람이 의미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각각의 형태를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게끔 규정했다 ]([: 글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에 ‘한글은 어법에 맞도록 적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글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에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을 때도 있고, 형태를 밝혀 적을 때도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해가 잘 되었나요?

▶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의미

네, 선생님. ‘값’에 ‘만’, ‘도’가 붙거나 ‘적-’에 ‘-지’, ‘-는’이 붙으면 [감만], [값도], [적찌], [정는]으로 소리가 바뀌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값만’, ‘값도’, ‘적지’, ‘적는’으로 적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네, 맞아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체언**(문장에서 주어 따위의 기능을 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에 **조사**(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단어)가 붙거나 **용언**(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 형용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어간**(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에 **어미**(용언이나 서술격 조사가 활용할 때 어간에 붙어서 형태가 변하는 부분)가 붙어 소리가 바뀔 때 **형태를 밝혀 적는 것**(어법에 맞게 적음,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음.)인데요. 이와 관련한 한글 맞춤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15항 규정을 묻는 문제에 “울어서 눈이 빨개졌다.’에서 ‘울어’로 적는 것은 제15항의 ‘먹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체언과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는 것은 각각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체언에 조사가 붙을 때 소리 나는 대로 **‘감만’**(비음화가 일어남.), **‘값도’**(된소리되기가 일어남.)로 적지 않고, 형태를 밝혀 **‘값만’, ‘값도’**로 적는 것입니다. [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어 활용할 때에도 **‘적찌’**(된소리되기가 일어남.), **‘정는’**(비음화가 일어남.)이 아니라 각각의 형태를 밝혀 **‘적지’, ‘적는’**으로 적습니다. ]([: 글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에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어 활용할 때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 체언과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서로 구별하여 형태를 밝혀 적음.

2024  
고1 국어  
천재(이)



고1 국어 천재(이) | 4(1)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오뚜기’로 적을까, ‘오뚝이’로 적을까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_\_\_\_\_의 기본 원리가 설명 대상임.) 먼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밀이 무거워서 아무렇게나 굴려도 오뚝오뚝 일어서는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입니다.**(\_\_\_\_\_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_\_\_\_\_을 유도함.) 여러분은 이 장난감의 이름을 ‘오뚜기’와 ‘오뚝이’ 중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나요?(실생활 속의 \_\_\_\_\_에 관한 \_\_\_\_\_을 통해 독자의 \_\_\_\_\_을 자극함.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 ‘글의 앞부분에서 실생활 속의 \_\_\_\_\_에 관한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_\_\_\_\_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입니다.

▶ **우리말의 정확한 \_\_\_\_\_을 제시한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한글은 **소리글자**(\_\_\_\_\_문자)이므로,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즉 발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글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은 한글이 \_\_\_\_\_인 것과 관련이 없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 ‘’를 의미하는 단어는 소리 나는 대로 ‘소’, ‘나무’로 적습니다.

그런데 ‘꽃’, ‘먹-’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음운 환경에 따라 ‘꽃이[꼬치]’, ‘꽃만[꼐만]’, ‘꽃도[꼐또]’, ‘먹어[머거]’, ‘먹는[멍는]’, ‘먹지[먹찌]’ 등으로 각각 다르게 발음됩니다.**(받침으로 쓰인 ‘\_’과 ‘\_’이 \_\_\_\_\_환경에 따라 \_\_\_\_\_하게 발음됨.) 이렇게 달리 발음되는 단어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국어의 특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어의 단어와 문장은 **형태소**(\_\_\_\_\_을 가진 가장 \_\_\_\_\_말의 단위)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 \_\_\_\_\_의 특징) [ 형태소는 구체적 대상이나 상태, 동작 등 실질적인 의미를 표시하는 **실질 형태소**(\_\_\_\_\_형태소라고도 함.)와, 접사나 어미, 조사처럼 실질 형태소에 결합하여 보조적 의미를 덧붙이거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요소인 **형식 형태소**(\_\_\_\_\_형태소라고도 함.)로 나뉩니다. ]([(): 형태소의 종류 - 형태소는 \_\_\_\_\_유무에 따라 \_\_\_\_\_형태소와 \_\_\_\_\_형태소로 분류할 수 있음. \_\_\_\_\_형태소란 자립하여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로,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가 이에 해당함. \_\_\_\_\_형태소란 자립하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말과 \_\_\_\_\_하여 쓰이는 형태소로, \_\_\_\_\_, \_\_\_\_\_, 용언의 \_\_\_\_\_과 \_\_\_\_\_가 이에 해당함. / 또한 형태소는 \_\_\_\_\_유형에 따라 \_\_\_\_\_형태소와 \_\_\_\_\_형태소로 분류할 수 있음. \_\_\_\_\_형태소란 \_\_\_\_\_적 의미를 갖는 형태소로, \_\_\_\_\_형태소 전체와 \_\_\_\_\_의 \_\_\_\_\_이 이에 해당함. \_\_\_\_\_형태소란 \_\_\_\_\_적 의미만 갖는 형태소로, \_\_\_\_\_, \_\_\_\_\_, 용언의 \_\_\_\_\_가 이에 해당함.)

▶ 표준어를 \_\_\_\_\_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나 한 음운이 \_\_\_\_\_에 따라 다양하게 \_\_\_\_\_될 수 있음.

다음 자료를 볼까요?

단어 차원	문장 차원															
밤나무, 지우개	모자를 쓰고 가라.															
<table border="1"> <tr><td>밤</td><td>+</td><td>나무</td></tr> <tr><td>지우-</td><td>+</td><td>-개</td></tr> </table>	밤	+	나무	지우-	+	-개	<table border="1"> <tr><td>모자</td><td>+</td><td>를</td></tr> <tr><td>쓰-</td><td>+</td><td>-고</td></tr> <tr><td>가-</td><td>+</td><td>-자</td></tr> </table>	모자	+	를	쓰-	+	-고	가-	+	-자
밤	+	나무														
지우-	+	-개														
모자	+	를														
쓰-	+	-고														
가-	+	-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2px;"> </span> : 실질 형태소</span>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4cccc; padding: 2px;"> </span> : 형식 형태소</span> </div>																

2024  
고1 국어  
천재(이)

고1 국어 천재(이) | 4(1)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오뚜기’로 적을까, ‘오뚝이’로 적을까> 제재 개관

갈래	설명문
성격	예시적, 설명적
주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함.</li> <li>•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형식을 통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li> </ul>

2. <‘오뚜기’로 적을까, ‘오뚝이’로 적을까> 글의 구성

처음	국어의 단어와 문장은 형태소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소리가 바뀔 경우 어떻게 적어야 할지 의문임.
중간	소리대로 적는 것이 표기의 기본 원칙이지만, 읽기 능력을 위해 어법에 맞게 적도록 하고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함.
끝	소리대로 적더라도 어법에 맞게 적도록 한 것은 형태소 간의 결합을 분명히 인식하여 의미 파악이 쉽도록 하기 위한 것임.

3.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Q. ‘꽃만’은 왜 ‘꼰만’이라고 적지 않을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훨씬 쉬울 텐데 말이야.

A. 쓰는 사람은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편하겠지만, 읽는 사람은 뜻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4.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단어

문-	+	-엄	→	무덤
참-	+	-아	→	차마

•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유  
‘-엄’과 ‘-아’는 미생산적인 접미사로 새로운 단어를 많이 만들어 내지 못한다. 실제로 ‘-엄’과 ‘-아’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형태를 밝혀 이들 단어가 ‘-엄’과 ‘-아’라는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TEST 1단계

1. <‘오뚜기’로 적을까, ‘오뚝이’로 적을까> 제재 개관

갈래	설문
성격	예시적, 명적
주제	한글 맞춤법은 표어를 소대로 적되, 법에 맞도록 함을 칩으로 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를 들어 설명함.</li> <li>• 문과 을 주고받는 형식을 통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li> </ul>

2. <‘오뚜기’로 적을까, ‘오뚝이’로 적을까> 글의 구성

처음	국어의 단어와 문장은 형소들의 합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리가 바뀔 경우 어떻게 적어야 할지 의문임.
중간	소로 적는 것이 표기의 기 칩이지만, 읽 를 위해 법에 맞게 적도록 하고 있음을 여러 를 통해 설명함.
끝	소로 적더라도 어에 맞게 적도록 한 것은 형소 간의 합을 분명히 인식하여 의 악이 쉽도록 하기 위한 것임.

3.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Q. ‘꽃만’은 왜 ‘꼰만’이라고 적지 않을까? 소리는 대로 적으면 훨씬 쉬울 텐데 말이야.

A. 는 램은 소 는 대로 적으면 편하겠지만, 는 사 은 뜻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4.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단어

문-	+	-엄	→	무덤
참-	+	-아	→	차마

•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유  
 ‘-엄’과 ‘-아’는 비적인 접미사로 새로운 단 를 많이 만들어 내지 못한다. 실제로 ‘-엄’과 ‘-아’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형 를 밝혀 이들 단어가 ‘-엄’과 ‘-아’라는 접 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유가 없으므로, 소 는 대로 적는다.

5. ‘오뚜기’와 ‘오뚝이’ 중 ‘오뚝이’로 적는 이유

해당 단어는 ‘오’+‘-’가 결합하여 새로운 말이 만들어진 경우로, ‘-이’는 앞말에 붙어 새 운 말을 다양하게 만들어 내는 접 사이다. 근과 접미사가 결합된 단어의 표기와 관련하여 한 맞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태를 밝혀 적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이’로 적는다.

6.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어의 분류

마개    흘쪽이    마중    삼    끄트머리				
‘소리대로’ 적은 단어		‘어법에 맞도록’ 적은 단어		
개, 마, 끄리		흘이,		

TEST 2단계

1. <‘오뚜기’로 적을까, ‘오뚝이’로 적을까> 제재 개관

갈래	□□□
성격	예시적, □□□
주제	한글 맞춤법은 □□□를 □□□대로 적되, □□□에 맞도록 함을 □□□으로 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를 들어 설명함.</li> <li>• □□□과 □□□을 주고받는 형식을 통해 내용을 □□□□으로 전달함</li> </ul>

2. <‘오뚜기’로 적을까, ‘오뚝이’로 적을까> 글의 구성

처음	국어의 단어와 문장은 □□□□들의 □□□□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가 바뀔 경우 어떻게 적어야 할지 의문임.
중간	□□□□□□ 적는 것이 표기의 □□□□ □□□□이지만, □□□□ □□□□을 위해 □□□□에 맞게 적도록 하고 있음을 여러 □□□□를 통해 설명함.
끝	□□□□□□ 적더라도 □□□□에 맞게 적도록 한 것은 □□□□□□ 간의 □□□□□□을 분명히 인식하여 □□□□□□이 쉽도록 하기 위한 것임.

3.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Q. ‘꽃만’은 왜 ‘꼰만’이라고 적지 않을까? 소리는 대로 적으면 훨씬 쉬울 텐데 말이야.

A. □□ □□□□은 □□ □□□□ □□□□□□대로 적으면 편하겠지만, □□ □□□□□□은 뜻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4.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단어

문-	+	-엄	→	무덤
참-	+	-아	→	차마

•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유  
 ‘-엄’과 ‘-아’는 □□□□□□인 접미사로 새로운 □□□□□□를 많이 만들어 내지 못한다. 실제로 ‘-엄’과 ‘-아’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를 밝혀 이들 단어가 ‘-엄’과 ‘-아’라는 □□□□□□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가 없으므로, □□ □□□□대로 적는다.

5. ‘오뚜기’와 ‘오뚝이’ 중 ‘오뚝이’로 적는 이유

해당 단어는 ‘□□□’+‘-□□’가 결합하여 새로운 말이 만들어진 경우로, ‘-이’는 앞말에 붙어 □□□□□□ 말을 다양하게 만들어 내는 □□□□□□이다. □□□□□□과 접미사가 결합된 단어의 표기와 관련하여 □□□□□□□□□□에서는 기본적으로 ‘□□□□□□를 밝혀 적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로 적는다.

6.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어의 분류

마개    흘쭉이    마중    삼    끄트머리				
‘소리대로’ 적은 단어		‘어법에 맞도록’ 적은 단어		
□□, □□, □□□□		□□□□, □□		



TEST 3단계

1. <‘오뚜기’로 적을까, ‘오뚝이’로 적을까> 제재 개관

갈래	_____
성격	예시적, _____
주제	한글 맞춤법은 _____를 _____대로 적되, _____에 맞도록 함을 _____으로 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_____를 들어 설명함.</li> <li>• _____과 _____을 주고받는 형식을 통해 내용을 _____으로 전달함</li> </ul>

2. <‘오뚜기’로 적을까, ‘오뚝이’로 적을까> 글의 구성

처음	국어의 단어와 문장은 _____들의 _____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_____가 바뀔 경우 어떻게 적어야 할지 의문임.
중간	_____ 적는 것이 표기의 _____이지만, _____을 위해 _____에 맞게 적도록 하고 있음을 여러 _____를 통해 설명함.
끝	_____ 적더라도 _____에 맞게 적도록 한 것은 _____간의 _____을 분명히 인식하여 _____이 쉽도록 하기 위한 것임.

3.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Q. ‘꽃만’은 왜 ‘꼰만’이라고 적지 않을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훨씬 쉬울 텐데 말이야.

A. \_\_\_\_\_은 \_\_\_\_\_대로 적으면 편하겠지만, \_\_\_\_\_은 뜻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4.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단어

문-	+	-엄	→	무덤
참-	+	-아	→	차마

•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유  
 ‘-엄’과 ‘-아’는 \_\_\_\_\_인 접미사로 새로운 \_\_\_\_\_를 많이 만들어 내지 못한다. 실제로 ‘-엄’과 ‘-아’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_\_\_\_\_를 밝혀 이들 단어가 ‘-엄’과 ‘-아’라는 \_\_\_\_\_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_\_\_\_\_가 없으므로, \_\_\_\_\_대로 적는다.

5. ‘오뚜기’와 ‘오뚝이’ 중 ‘오뚝이’로 적는 이유

해당 단어는 ‘\_\_\_\_\_’+‘\_\_\_\_\_’가 결합하여 새로운 말이 만들어진 경우로, ‘-이’는 앞말에 붙어 \_\_\_\_\_말을 다양하게 만들어 내는 \_\_\_\_\_이다. \_\_\_\_\_과 접미사가 결합된 단어의 표기와 관련하여 \_\_\_\_\_에서는 기본적으로 ‘\_\_\_\_\_를 밝혀 적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_\_\_\_\_’로 적는다.

6.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어의 분류

마개    흠쪽이    마중    삶    꼬트머리	
‘소리대로’ 적은 단어	‘어법에 맞도록’ 적은 단어
_____, _____	_____, _____